

마가복음 14
Tape #C2525
By Chuck Smith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인 일요일로부터 시작하여, 성전에 다시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다시 가서 가르치신 후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거대한 성전 돌들을 대단하다고 여겨 보시도록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예수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즉 화요일을 기준으로 이틀을 지나면 목요일로, 목요일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에서의 하루는 전날 저녁 6 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화요일의 이틀 후 오후는 목요일 오후이므로, 우리의 계산으로하면 실제로는 새 날이 시작되기 직전인 수요일 오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유월절 잔치를 목요일 밤에 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기보다는 목요일인 유월절에 달리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무덤 속에서의 삼일 밤 삼일 낮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에 달려있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무덤 속에서의 삼일 밤과 삼일 낮이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저 추론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택하느냐, 버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사람들이 ‘날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문제 틀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꾀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14:1-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은 축제일, 즉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들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양의 사명을 지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유월절 어린 양의 모든 상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던 바로 그 날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모든 상징적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에는 중요한 축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축제일에 유대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 가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족을 위한 양의 희생, 무교병을 떼어 먹고 그 부스러기를 숨기는 등, 유월절 축제에는 온갖 종류의 그 의미를 묘사하는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무교병의 중앙을 잘랐으며, 왜 그 부스러기들을 숨겼으며, 왜 그 절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상징들이 많았으며, 예수님이 이 모든 상징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절기는 오순절로, 유월절의 50 일 후에 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Pentecost) 의 ‘pente’는 ‘50’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를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때 들판에 나가 밀밭과 같은 곳의 한 구석에서 한 다발을 베어 그것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유월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기 전에는 그것을 따다가 팔거나 먹는 행위는 엄한 경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두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를 기념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들이 드린 교회의 첫 열매는 교회의 첫 전도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첫 전도사역은 유월절날 베드로가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시작되었으며, 이 때 약 삼천 명이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열매이며, 수확은 그때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열매들을 더하고 계십니다. 세번째로 중요한 절기는 초막절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40 년간의 광야 유랑생활 속에서 이적적으로 보존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광야에서의 방황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시대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신약적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초막절 축제의 신약적 성취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가 초막절 축제 기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될 때 초막절의 신약적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속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축제는 성령강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첫 열매가 교회에 더해짐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 축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 즉 오랜 세월 광야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실 때가 초막절 축제가 성취되는 때일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4: 3).

당시 여자들이 관습적으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향유는 인도에서 가져왔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의 집에 손님으로 간다면 그 집주인이 그 귀한 향유 한 방울을 우리 몸에 발라주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도 가끔 향수를 한 방울씩

제게 발라 줘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것이 그런 종류의 향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향유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아예 병을 깨뜨려 그것을 모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14: 4)

요한복음에 따르면 분내어 말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일행의 회계로서 금고를 지니고 다녔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훔쳐서 개인적으로 써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치는 약 10 개월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14: 6-8)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아주 깊이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4: 9)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자신은 비록 죽을 것이지만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구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된 것은 절대로 헛되이 허비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지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전 15 : 58) 고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을 허비하였습니다. 저는 허사로 끝나버린 많은 계획들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은 하나도 허비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는 책망을 들은 가롯 유다는 곧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때 그 열둘을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4: 11-21)

주님이 한 개인에게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신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만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다면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왔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명백하고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보 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삶의 결국은 사단을 멸하시는 확실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사단을 삼켜 버릴 하나님의 진노의 불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4: 22-2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유월절 의식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부셔진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눅 22 : 19). 이제 앞으로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죽어 그 피가 문설주에 뿌려진 그 양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은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필요한 힘을 주었던 그 양을 기억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14: 26)

당시에 유월절 축제가 끝나갈 때 전통적으로 부르던 노래는 시편 118 편이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시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노래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여 ,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 118 : 22-26)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노래를 부르시고 나서 다락방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가리라.” (14: 27-28)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이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고 자기가 그 예언보다 상황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감히 예언의 말씀을 거스리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 때는 여하간에 우리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막 13 : 31) 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 즉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예언 을 인용하여,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 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자아를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놓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랑하는 때는 언제든지,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수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은, “내 가 진실로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졌을 때 새 날이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께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고백은 절대적으로 신실한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실패가 믿음의 실패라거나 사랑의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의 약한 육체의 실패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제보다 미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자만 때문에 우리는 주께 쉽게 맹세하거나 약속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오! 주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물론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실 때 신실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개를 흔들시며, “너, 또 왜 그러니?”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맹세나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약속이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주실 것입니다.

결코 저 자신의 장점을 근거로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위하여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나의 현 재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나중의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까지 한 일은 얼마나 비참한 것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잘한 점을 근거로, 나의 받을 만한 인물됨을 근거로, 나의 선함을 근거로, 나의 노력을 근거로, 그리고 나의 거짓된 약속을 근거로 무엇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그 어떤 약속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격렬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말이 더 사실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때는 우리에게 취약점이 있는 때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요약하면서 몸짓이나 손짓으로 설교내용을 표현 하시곤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때를 강조하기 위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내밀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슬픈 듯이 흔들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큰소리를 지른다는 사실입니다. 큰소리를 지름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도 더욱 힘있게, 더욱 격렬하게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가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겻세마네란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겻세마네 동산’은 올리브나무 과수원이었습니다. 겻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서 아담한 동산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올리브 나무 과수원이었으며, 그곳에서 올리브 열매를 압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겻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밀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14: 32-34)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정의 동요를 깊이 느끼기 시작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조용히 흐느끼시면서 값은 한숨을 쉬셨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보통 때와는 너무 다른 무거운 흐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수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뒤에 잠시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하는 사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

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일은 참으로 힘겹고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시점에서 맞이해야 했던 바로 그 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은 예수께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다음날 너무도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대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겻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고통 가운데 싸웠던 그 내면의 싸움을 쉽게 잊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승리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 밤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와 저를 위한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 겻세마네 동산에서 실제적인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겻세마네 동산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므로 나머지 전투는 너무나 쉬웠던 것입니다. 정말로 치열한 전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기도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마 12 : 29)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집의 강한 자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 털어 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야 기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더 많은 것들을 결코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3 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 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 : 2 에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겻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한 요한계시록 5 장의 환상을 예수께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듭니다. 그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땅위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큰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만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하고 찬양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와 저의 삶 속에서 구속이 완성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시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에 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므로 승리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설인 것 같지만 승리로 향하는 길은 항복의

길이요, 포기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승리자요 정복자인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드리는 순간, 즉 승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사오니, 지금 저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수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그 상황을 포기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 엇으로 대답할줄을 알지 못하더라? (14: 40)

“세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 직후에도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얼마 동안 지켜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이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는, “베드로야, 너는 용기가 있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구나. 너는 잠재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수 있는 큰 잠재력이구나. 오! 하나님, 베드로를 강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한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요한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귀한 사랑의 영을 가졌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에서부터 나 있는 도시의 성벽을 따라 언덕을 내려오고 있던 로마군인들이 시끄럽게 내는 발자국 소리, 흥분해서 떠드는 소리,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셨을 것임이 틀림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들에게서 피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14: 43-45)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코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가 예수니 잡으라’는 표시로 예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맞춤’의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린 아이의

이마에다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살짝 데었다 때는 것 같은, 애정을 표시하는 가벼운 입맞춤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한 단어는 연인들 사이의 정열적인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고 했을 때 쓰인 헬라어는 후자의 단어였습니다. 그는 정열적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14: 46-47)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갑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 버렸습니다. 그의 귀만 자른 것은 아직도 잠이 덜 깬 베드로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마터면 머리를 벨 뻔 했으니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귀를 집어 붙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밀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14: 48-49)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므로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키려 하거나 변경시키려 한다 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며 성취될 수밖에 없으므로,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남들과는 많이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설교자들은 현재의 세계를 보면서 낙담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세에 있으리라고 성경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막을 수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성경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가는 겨우 12 살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여행하였는데, 의문의 여지없이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흩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 흩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14: 51-52)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마가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억하여 기록한 부분은 딱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이 특별한 구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점과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성경 학자들은 마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 넣은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아마도 예수님 일행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열심히 몸으로 수고한 헌신적인 부인들 중의 하나로 추측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린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아주 매료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마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겐세마네 동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무리들에게 잡히자, 두르고 있던 흠이불을 버리고 벌거숭이로 정신없이 도망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14: 53)

역사적으로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정부에 의해 임명된 자였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가야바는 로마정부에 의해 임명된 자였고, 안나스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14: 54-58)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 : 19) 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 헤롯 대왕이 지은 돌로 된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 10:17-18)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지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자신의 육체를 언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던 자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한가?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14 : 60-61)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대답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재차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 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해오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14: 63-64)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이것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 50 : 6) 고 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참으로 놀랍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주먹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면, 그 주먹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반사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먹이 들어오면 우리 몸도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그 충격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몸의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이 잘못 디디지 않도록 해주므로, 우리는 굴러떨어져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계단이 눈으로 보고 어림잡은 것보다 더 높거나 낮으면 발을 헛디디 넘어지게 될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몸의 반사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작 4-5 센티만 착각하더라도 우리는 발을 헛디디 뼈가 부러질 것입니다. 즉 갑작스런 충격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충격은 우리의 몸 전체로 순식간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먹질을 당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이 언제 부상을 입습니까? 그가 볼 수 없을 때입니다. 급하고 강한 태클이 들어오는데 선수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미처 보지 못했을 때, 그 선수는 넘어져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약 127 킬로그램이나 되는 거구의 수비수가 공격수 뒤에서 갑자기 점프하여 막을 때에 공격수가 다행히 그것을 미리 보면 부상을 덜 입지만, 전혀 보지 못했다면 그 선수가 그 충격을 대비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 심각한 상처를 입히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서는 몸이 반사행동을 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은 심각하게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 구타가 얼마나 심했는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사 52~53 장) 대로,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나 부어 오르고 상해서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고 다 놀라 “이게 과연 사람의 얼굴인가?” 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두드러 맞아 붓고 상처를 입어 도저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 버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는 매맞은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실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아 보기 어려운 정도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분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사 53 : 5)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 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밀하되 너는 갈갈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답이 곧 두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답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14: 66-72)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우리들에게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감정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때, 그 약속은 신실한 것이 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정 일어서려는 의도였지 넘어지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자기확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선 줄 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 : 12) 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은 하되 저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베드로는 기도했어야 할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보다 다른 활동들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눅 18 : 1)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기도하기 보다는 낙망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난 못해. 너무 끔찍해. 너무 무서워”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낙망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처소는 능력의 처소입니다. 세번째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의 불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의 불에서 위로를 얻고 몸을 녹이려 하는 행위는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집어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서는 안되는 곳들이 더러 있습니다. 흥미롭고 짜릿한 재미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잘못된 불에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지만, 우리가 그리로 가면 우리는 패배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한 부류에 속한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가까이서 따른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꾸준히 주님을 따라간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 3 : 14) 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설득당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헌신하기로 한 그것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지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교훈을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너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기 위하여 그 잔을 마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영적 · 신체적 · 감정적인 극심한 고통을 참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반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여 기꺼이 그 잔을 마신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충분히 감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지금 이제 각각 헤어져 갈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하옵나이다. 아멘.